

2020 산지천갤러리 전시기획 공모 심의결과 발표

(재)제주문화예술재단은
2020 산지천갤러리 전시기획 공모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
발표합니다.

2020. 3. 17.

(재)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

2020 산지천갤러리 전시기획 공모 심의결과 안내

□ 심사결과

- 지원신청 : 10건/ 194,290천원
- 선정결과 : 1건/ 20,000천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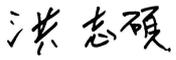
□ 선정결과

지원신청사업명(전시명)	신청자명(기획자)	지원결정액
생명속의 안식처	문예슬	20,000천원

□ 심의총평

2020년 산지천갤러리 전시기획 공모에 모두 10개의 기획안이 제출되었다.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전통, 환경, 생태와 마음 등 현대예술의 여러 쟁점을 제주 및 산지천의 지역성과 연계하여 풀어낸 흥미롭고 수준 높은 기획이 많았다. 하지만 유의미한 주제를 제시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불분명하거나 예산편성이 치밀하지 못한 기획안들에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었다. 문학, 패션 등 미술 인접 분야와의 교류 및 협업을 제안한 몇몇 기획안은 장르 간 대화를 중시하는 현대예술의 흐름에 부합하는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서 문학작품이나 패션을 전시장에서 가시화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. 또한 기획안 다수가 작가와의 대화, 관객체험형 교육프로그램,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계 프로그램을 제시했으나 이 가운데 몇몇은 프로그램 기획의도가 불분명하거나 본 전시와의 연계가 부족해 아쉬웠다. 내용, 형식면에서 본 전시와 긴밀히 연관되면서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할 참신한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.

최종선정 과정에서 심의자들은 <떠있는 섬>과 <생명속의 안식처>를 주목했다. <떠있는 섬>은 8명의 시각예술가, 3명의 시인들을 참여시켜 다양한 관점에서 제주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른다는 기획안이 높은 호소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. <생명속의 안식처>는 '생명'과 '안식처'에 주목하여 제주의 자연생태에 접근하는 시의적절한 기획의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. 이 가운데 기획주제와 작가선정의 연계, 치밀한 전시 연출계획 및 예산편성의 합리성이 돋보이는 <생명속의 안식처>를 최종 선정했다.

심의위원장 홍지석 

<심의위원>

김준권(작가)/ 서상호(오픈스페이스 배 대표)/ 양종남(인천아트플랫폼 팀장)
이경은(前 제주현대미술관 관장)/ 홍지석(단국대학교 미술학부 초빙교수)